

부산항, 컨테이너 909만개 처리!

2002년 환적화물 처리 전체 40% 넘어서 ... 중국 경제 급성장 덕

2002년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이 2001년보다 20피트 기준 100만개 이상 늘어난 909만여개로 집계됐다.

특히, 환적화물은 연간 단위로는 처음 전체 물량의 40%를 넘어섰다.

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, 2002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은 909만개로 2001년 807만2000개보다 12.6% 늘었다.

또 환적컨테이너는 373만개로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41.1%를 차지했고 2001년 294만2000개보다는 26.8% 늘어났다.

2002년에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동북아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다 특히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환적화물이 급증한 때문이다.

또 대한통운이 2002년 6월 차이나시핑이 그동안 일본 고베항에서 처리하던 환적화물을 유치하면서 77만개의 물량이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.

부두별로는 감만부두의 처리물량이 2001년보다 13.7% 늘어난 218만600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선대부두 148만3000개, 자성대부두 146만개 등의 순이었다.

증가율은 감천한진부두가 50만1000개로 15.8%를 차지했고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는 각각 14.8%와 13.7%로 나타났다.

반면,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고 만성적인 야적장 부족에 시달리는 일반부두(3·4부두)와 기타 부두는 2001년보다 각각 7.9%와 4.2% 줄었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3/ 01/ 23 >